

메시지 7  
승천을 읽

성경: 행 2:36, 히 2:9, 4:14-15, 7:26, 12:2, 엡 1:19-23, 2:6

I. 사람-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II.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A.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 히 2:9.

1.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귀중함이다 — 벰전 2:7.
2. 그리스도는 상태에 있어서 영광스러우시고, 지위에 있어서 존귀하시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존귀이다.

B.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22:1, 3, 비교 21:23.
2. 그리스도는 이제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유일한 행정관, 곧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 계 1:5, 17:14, 19:16.
3.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은 우주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 비교 행 5:31.

C.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행 2:36) 이 절에서 ‘되게 하셨습니다’는 ‘취임시키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취임시키셨다.

1. 승천 안에서 사람-구주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셨다. 그분은 이제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모든 긍정적인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을 소유하신 주님이시다.
2. 승천 안에서 사람-구주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히 1:9).

D. 이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엡 2:6).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권위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해야 한다. 곧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해야 한다.

### III.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보아야 한다 — 비교 시 91:1, 아 4:7-8, 6:10.

- A.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 음부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는 곳인) 땅과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곳인) 공중과 (사탄이 갈 수 있는 곳인—엡 1:20-21, 4:8-10, 히 7:26, 욥 1:6-12상, 2:1-6)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다.
- B.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하늘들을 통과하셨다(히 4:14). 그러므로 지금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9:24), 하늘들보다 더 높이(7:26), 즉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다(엡 4:10).
- C.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떤 전달이 있음을 제시한다.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교회에게’라는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오는 전달을 보여 준다.
1.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큰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언가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 즉 그것은 교회에게 전달되고, 교회는 그것을 함께 나눈다.
  2.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네 단계로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것을 보여 주는데, 이 네 단계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고, 둘째로 그분을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며, 셋째로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신 것이고, 넷째로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 D.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 골 1:18, 엡 1:23, 3:19.
1. 머리와 몸은 하나이며 우주적인 한 사람을 이룬다. 이 신성한 일에는 공간의 요소도 없고 시간의 요소도 없다. 몸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 안에서 머리와 하나이다.
  2. 신성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분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이다(엡 2:6). 바로 이 승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에(골 2:9),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가 포함되어 있다(엡 1:22-23, 3:19, 8).
- E.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깊어 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취임하셨다 — 히 2:17-18, 4:14-15, 시 110:1-4, 히 5:6, 7:26.
1.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해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히 7:25-26, 롬 8:34).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그분의 옷, 곧 제사장의 의복이 보여 주듯이(출 28:33-35)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신다.
  2.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계시되신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3절)

IV.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엡 2:6.

A. 은혜 시대 전체가 주님의 승천의 때이다 — 엡 1:20.

B.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신다 — 골 1:27.

C.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의 승천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며, 머무시고, 사역하시며, 섬기시고, 일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 엡 2:6.

2. 우리의 존재 안에는 비범한 한 인격,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 골 1:27, 엡 2:6.

3.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 딤후 4:22상.

4. 이러한 승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역사가 된다.

5.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러한 체현의 일부분이다 — 롬 8:10, 고후 13:5, 갈 2:20, 4:19, 골 2:9.

6.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이것이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 마 18:20, 골 3:1, 3-4, 엡 1:20, 2:6.